

전도자의 고백 2007-2022

The
Evangelist's
Confession



저는 청소년 때, 복음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이론도, 종교도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너를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데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30년 동안 전도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폐만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 중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행복을 날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치유받을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마

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나를 많이 봅니다. 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 동기를 없애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음을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모슬렘처럼 엉뚱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주신 겁니다. 렘넌트는 이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탄과 흑암과 저주를 꺾으신 주께서 렘넌트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받아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서고, 걷고, 정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여섯 번 죽어야 될 일을 당했습니다. 화재만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물에서 두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했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희망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교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회개하라고 합니다. 저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죄가 더 많았습니다.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선을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제게는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 죽어가는 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네 죄를 전부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

다. “너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셨습니다.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 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혼자서 강가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나와 우리 후손과 렘넌트가 제자의 길에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전도자의 길에 있게 해달라고, 저와 우리 후손이 선교의 길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섯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큰 축복과 도움을 잠깐 잊어버리고 굉장한 큰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많은 응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든 사람, 마음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 하

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가사를 짓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저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세계를 바꿀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가 문화를 바꿀 그날까지 저는 어떤 것도 참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 전에 벌써 준비하셨다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기도

하나님, 그동안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송구하고 미안합니다. 겸손히 주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담대하지만 교만치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큰 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 렘넌트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언약적 결단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특기가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심인데 그때 자존심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을 전부 바꾸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램넛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깨달았는데도 실제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에게 굉장한 위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책임질 우리 램넛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괜찮으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다른 것을 가슴에 담지 마세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가슴에 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으세요. 우리 램넛트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혼자 살아남을 준비를 하세요.
혼자 살아남아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조직을 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의 것을 준비하세요. 한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가되 세 가지 한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인을 만나게 되면 천 가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인을 만나게 되면 만 가지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로 만족이 없을 만큼 기성세대는 다른 것으로 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렘넌트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나서 화재를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고생을 하다가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제가 멸망 상태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창세 전에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운동 일어나니까 교인을 빼앗아가는 이단이라

고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무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500명의 목사님과 500명의 사모님을 붙여서 전도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한 핍박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렘넌트와 함께하겠다!” 이것으로 만족 못 하면 나에게 있는 다른 색깔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면 내가 가진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만 가지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만 가지의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렘넌트의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므로 ‘오직 복음과 렘넌트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행복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렘넌트의 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길이 없는데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실패들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저를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저를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도 저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가문을 지금까지 무너뜨린 사탄을, 그 머리를 깨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짓말들이 여러분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시”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게 24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렘넌트 선교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질 미션이 뭔가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혼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시 예배요, 정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한 치유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네 눈물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이게 내가 응답받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액체가 세 가지 있습니다. 피, 땀, 눈물입니다. 피는 생명을, 땀은 수분을, 눈물은 진실을 이야기해요.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아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상처로 인한 눈물이 아닌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려움 당했던 것이 전부 발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눈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다 주었는데 모르고 있느냐? 저 밖에,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옛날의 상처는 축복의 발판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눈물을 가지고 보면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눈물 중에 제일 좋은 눈물이 뭘까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눈물 중에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사명의 눈물로 바뀌어야 되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의 황폐함을 치유해 주옵소서. 상처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나는 렘넌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있는 저를, 복음도 모르는데 부르셨어요.

저는 배경도 없고 큰 학벌도 없었습니다. 나와 같이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사람은 이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부딪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귀의 종노릇만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많은 재앙들, 저주들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 제게는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깨달았는데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생을 하고 지나간 길인 줄 알았던 것이 전부 전도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왔는데 그것도 전부 전도의 발판이 되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전도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었드렸는데 하나님은 20가지 전략을 보게 하셨습니다. 20년간 핍박을 받았는데도 계속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십몇 년 동안 변함없이 램넌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램넌트에게 부탁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이 말, 저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상 그 말이 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제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램넛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큰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틀린 눈물이었구나. 나 자신을 위한 육신적인 눈물을 흘렸구나.’ 그 시간에 진짜 눈물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문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멸망이 왔구나. 오랫동안 교회는 복음이 없어서 실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 눈물을 보게 되었어요. ‘재앙이 오고 있는데 막을 길은 복음밖에 없다. 해답은 램넛트이다.’ 그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었어요. 나는 진짜 눈물이 뭔지 알고 난 뒤부터 억울한 일에 섭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진짜 눈물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시대 살리는 이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사람 살리는 그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장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날, 그때, 그곳에”입니다.

“뜰린 눈물을 흘릴 것이냐? 나를 위한 육신적인 눈물을 흘릴 것이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진짜 눈물을 흘릴 것이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저는 늘 질문합니다. 전도할 때도 질문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정말 전도를 위한 것이냐? 참 선교를 위한 것이냐?” 이 진실을 매일 물어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과 세계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불신자를 쳐다보면서 사탄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세요. 저는 이 땅의 많은 깔려진 재앙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영적 문제와 사탄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우상과 영적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가 확실한데 저는 못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멸망을 시켜가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구나.’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도 힘든 정시 기도가 가장 행복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행복한 기도가 되어졌어요. 힘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 축복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누리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주의 성령이 나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배경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흑암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 주옵소서.”

렘넌트 7명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다른 세계의 비밀을 시작하세요.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어릴 때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참 은혜로 부르셨어요.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시 기도인 갈보리산으로 들어갔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날로부터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에게 두 번째 갈등이 왔어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로 돌아가 버려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건데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중 기도의 감람산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세 번째 갈등이 왔습니다. 지금 사탄의 문화가 엄청 일어났어요. 싹 다 사탄의 문화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았어요. “렘

넌트를 키워라.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그 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내고 빨리 하나님의 것을 넣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때 받았어요. “집중을 넘어서서 24 세계 살리는 기도 비전 트립을 시작해라.” 그게 오순절 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언약이었어요. 그걸로 완전합니다.

오늘 갈보리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개인, 가문, 모든 흑암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고민되는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영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탄의 뿌리입니다. 그걸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진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의 미션은 뭡니까? 나의 천명은 뭡니까? 나의 감람산은 뭡니까?” 그래야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잠시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 무응답,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외로움 가운데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나가면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제가 본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큰 흑암을 막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여러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최고 고민이 뭘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뭘니까? 고백하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 어느 날 시대 바꾸는 응답으로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힘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응답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언약 잡으세요. 응답은 그때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언약으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시간표에 승리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은 꼭 알고 가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사람을 자꾸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흑암이라는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려버렸어요. 눈에 전혀 안 보이게 인간을 묶어서 그 함정 속에 빠뜨려버렸어요. 혹시 올라오면 안 되니까 뚜껑을 덮어놓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렘넌트 7명이 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는 데는 세 가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흑암 세력을 알고 그들을 살리러 가라!” 그러면 백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강한 자가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렘넌트는 발악과 신음 소리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깨달고 언약 속에 있으면 세계를 살리게 되어요. 이것 깨달은 다윗에게 천년의 응답이 왔어요.

세 번째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문, 지역, 나라

어떻게 살릴까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흑암 세력을 아는 자, 램넛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램넛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시대적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복음 정말 아는 램넛트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램넛트 있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합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인 참 비전을 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정말 꾸어야 될 참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도록 참된 여정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날 많은 변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주신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꼭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눈만 감아도 성령의 일로 각인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매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강하게 됩니다. 이게 24로 바뀔 때는 미래도 보이고, 힘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힘든 것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는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비밀 있으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를 조금만 시

작해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
이라면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의 말만 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람만 보며 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
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인
도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역이 누군지 압니까? 램네프입니다. 여러
분은 세계 살릴 증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는지 아십니까?
남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남
을 실패시키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잡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가 있
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작고 큰 선택을 해야 됩니
다.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도
록 그 자리로 가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해야 될 선택이 뭘니까? 24 임마누엘입니다. 그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대 바꾸도록 하나
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또 판단하고 말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
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속고, 여러분을 속
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인도 못 받아요. 여
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속에 있으면 인도

받게 되어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면 되어요. 그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게. 너를 인도하겠다. 여호와 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재창조의 능력을 주겠다.”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과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은 시대 살릴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24년째 램넛트 운동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조용히 3단계는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램넛트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가면 사람 중심이었어요.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뭔가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틀린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이 구원을 위한 복음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로 저의 인생을 편집을 한 겁니다. 이게 각인되었는데 어느 날 제게 달란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인식이겠지요.

그러면서 제게 두 번째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을 설계한 겁니다. 이게 제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무

엇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저와 1:1의 사명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현장이 보여요. 그걸 디자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전체 생을 전도에 디자인하기 시작하니까 영원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이, 237 나라에 빛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은 전부 언택트였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을 가지고 비대면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콘텐츠와 미디어가 여러분의 삶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자요, 서밋입니다.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시작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행복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고 정시 기도, 플랫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심지어 제가 호흡하는 거 기도로 바꿉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시 기도, 파수꾼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정말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특히 예배드릴 때마다 적어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100번 이상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누려지는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 드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고 눈을 떴는데 보좌의 능력과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게 정시 기도예요.

이때부터는 모든 게 파수꾼의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볼 때는 모든 불빛 하나하나가, 모든 소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일들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렘넌트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치유하려고 안 했는데 일어나요. 이 세 가지 기도는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렘넌트는 멀리 보고 영원한 걸 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세계 움직이는 렘넌트가 될 겁니다.